

RDA 도입을 위한 정보조직 교육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DA in LIS Cataloging Curriculum

백 지 원 (Ji-Won Baek)**

목 차

- | | |
|-------------------------------|----------------------|
| 1. 서 론 | 3.1 교수자의 의견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2 학습자의 요구 분석 |
|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RDA 교육 모형 개발 |
| 1.3 선행연구 | 4.1 RDA 교육 모형 개발의 요건 |
| 2. 목록 교과와 RDA | 4.2 RDA 교육 모형 설계 |
| 2.1 목록 환경변화와 RDA 교육 | 4.3 강의계획안 설계 |
| 2.2 RDA 교육 사례 | 5. 결 론 |
| 3. RDA 교육에 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 분석 | |

초 록

본 연구는 RDA라는 새로운 목록규칙이 도입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의 목록 교육에 있어서 RDA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고려 사항을 분석하고, 전공 교과로서 RDA를 포함한 목록 교육 모형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기존의 목록규칙과 RDA가 공존하는 현실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목록 과목에 주어진 시간 제약 속에서 효과적인 교육 내용 구성 및 전달 방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행 문헌정보학 전공 목록 교육의 현황을 RDA와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였다. 둘째, 교육자의 인식과 교육 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RDA 교육에 관한 교수자들의 토론 내용과 이슈를 분석하였다. 셋째, 학습자인 전공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개 대학 목록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RDA 수업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RDA를 도입한 목록 교육 모형을 설계하였고, 이 모형을 바탕으로 정보조직 강의계획안을 설계하였다.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newly developed cataloging rule, RDA on the LIS cataloging education and to propose Korean LIS cataloging curriculum in a time of RDA. This study specially intended to examine the coexistence of the AACR and RDA and its implications on the LIS cataloging curricula design in the limited time of the course of stud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rapidly changing cataloging circumstances and how it affects on the cataloging education in LIS. This study also explored the students' as well as instructors' opinion and demand on cataloging education specially regarding RDA. As a result, this paper designed a cataloging education model including RDA curriculum and it also suggested cataloging syllabus based on the education model.

키워드: 자원 기술과 접근, 목록, 목록규칙, 정보조직, 문헌정보학, 교육 모형

RDA, Cataloging, Cataloging Rules, Information Organization, LIS, Education Model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7042736).

** 송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jw.baek@naver.com)

논문접수일자: 2016년 7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8월 1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403-428,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403]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보조직 업무는 도서관의 정보 관리 및 서비스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공 교과목으로서의 정보조직 역시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오랫동안 필수 혹은 핵심 과목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조직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과 업무 현장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로 드러난다. 지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0여 년간 정보기술 및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과과정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설된 과목 수나 핵심과목으로 지정된 수치 등에서 정보조직 과목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해왔으며, 그 비중은 줄어들지 않았다(엄영애 2009, 17). 사서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서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문헌정보학 전공과목 정비 방안 등의 연구에서도 정보조직 영역은 문헌정보학의 표준교과목이나 필수 교과목 선정에 있어 최우선적인 대상으로 꼽혀왔다(정동열 2007; 곽동철, 심경, 윤정옥 2009; 국립중앙도서관 2011).

학부제의 도입, 부·복수전공제의 보편화 등 대학 학사 운영체계의 변화로 전공 이수 학점이 대폭 감소하고 필수과목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이러한 오랜 인식은 학생들에게도 전해져왔다. 따라서 전공 학생들은 학사의 규정 여부와 별개로 정보조직을 문헌정보학의 필수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실무에서는 전공 졸업생들이 현장으로 나올 때 필수적으로 정보조직에 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1). 뿐만 아니라 '정보조직론(또는 정보조직개론)'이 거의 모든 직급의 사서직 공무원 시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교육 받은 내용이 전문성으로 실현되는 업무 현장에서도 정보조직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보조직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목록 관련 교육은 근래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바로 목록규칙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전 세계 서지제어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표준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영미목록규칙(AACR)이 제 3판으로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가 돌연 그 이름을 RDA(Resource Description & Access)로 바꾸어 전면 개정되어 2010년 발표되었다.

RDA는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FRBR)와 Functional Requirements for Authority Data(FRAD)에서 정의한 개체의 속성과 관계의 측면에서 서지세계를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실물 자원 중심적이던 목록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과 실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RDA는 단순히 AACR2의 개정판이라고 보기에는 그 기본 원리나 구성, 체계 등이 확연히 다르므로, 기존의 목록 교육과는 다른 별도의 내용이 교육 과정 속에 추가되거나 교육 과정이 새롭게 설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목록과 관련된 논의는 대체로 각급 기관 차

원을 넘어 전 국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협력적인 서지제어 활동의 기반으로 작동하게 될 국제적인 목록규칙의 변화 및 서지세계의 해석과 구조화, 연계 방식의 변화는 전공 학생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사안이다. 이미 LC나 OCLC 등을 통해 RDA를 적용한 목록 레코드가 국내로 반입되고 있으므로 전공학생들에게는 RDA가 필수적인 학습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조직 교육은 내용적으로 정보조직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한 과거의 탐구, 현재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표준과 업무 방식의 습득,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RDA와 같은 새로운 목록 규칙과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 실무 교육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하는 도전적인 시기를 맞은 것으로 판단된다. RDA는 현재 혹은 앞으로 목록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 활동할 때 직접 업무 환경에서 맞닥뜨리게 될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RDA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RDA를 적용한 전공 교육 실행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시점이다.

RDA는 기존의 서지세계에 대한 개념 기반과 구조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므로, 특히 기존의 서지세계에 대한 선행되는 지식과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교육해야 효율적 일지를 판단하여 적시에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국내외의 각급 대학에서는 개별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RDA 교육이 다양한 정도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론화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이 지속될 경우, 향후 전공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될

전문 인력이 가지게 될 지식과 전문성의 편차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목록규칙이 RDA로 변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공 목록 교육에 RDA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고려 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RDA를 도입한 목록 교육 모형을 설계하고,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한 RDA 교육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 교과목과 RDA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록의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목록 규칙의 등장이 의미하는 바를 밝혔다. 또한 RDA를 국내외 대학에서 교육하는 사례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RDA를 도입한 목록 교육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와 학습자의 인식과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외국 대학 목록 교육자의 RDA 교육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RDA의 교육에 대한 토론 내용을 조사하였다. 대표적으로 University of Missouri의 'Cataloging Curriculum Summit' (2011), 그리고 Ontario Library Association (OLA)의 Super conference에서 제안되어 개최된 'RDA in the Curriculum'(2012)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토론 내용을 교육 여건 및 요구 분석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주요 주제별로 나누어 재구조화하고 유형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의 경우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고

하고, 교수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수렴하여 국내의 교육 경향을 파악하였다.

셋째, 학습자인 전공 학생들의 RDA에 대한 인식과 학습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2개 대학 목록 수강생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학에서 강의의 목표 설정 및 내용 구성, 방법 선택 등은 교수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금의 목록 수업과 같이 학습 내용이나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RDA의 도입으로 강의와 과제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고 개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학습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고 학습 방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등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조사와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RDA를 도입한 전공 교육 모형 개발을 위한 고려 사항과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모형을 기반으로 강의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1.3 선행연구

문헌정보학 전공 영역에서 RDA의 교육 방안이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 설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Hitchens와 Symons(2009)은 RDA의 실행에 있어 훈련의 중요성을 제기한 초기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특히 RDA의 도입

에 있어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육자들이 교육자 스스로와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RDA의 기반이 되는 이론, 어휘, 목록규칙으로서의 구성상의 특성, 주요한 규칙의 변화, 선택 사항, 매뉴얼의 정비, 훈련의 유형 등으로 나누어 RDA의 교육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Buhler(2011, 15)은 “숙련된 목록 담당자들도 RDA를 어려워하는데, 문헌정보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교수들은 [RDA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RDA 교육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밝혔다.

한편, RDA에 대한 인식이 RDA를 접해 본 경험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다. 미국 국립 도서관 3개가 참여한 2010~2011년의 RDA 테스트 수행에 따른 설문조사의 결과, RDA를 적용한 레코드 생성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배 가까운 비율로 RDA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다(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Young과 Valerie의 연구(2011)에서도 25명의 연속간행물 편목자들을 대상으로 한 RDA 테스트의 결과, 직접 레코드 생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단순히 평가자로 참여한 사람보다 1.5배 정도 높은 비율로 RDA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더 많은 훈련의 기회가 제공될수록 목록 전문가들 사이에 퍼져 있는 RDA로의 전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전공 학생들에게 RDA 교육의 적절한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목록계에서 RDA 적용 방식과 실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정보조직 혹은 목록 교육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의 연구들이 있다(조재인 2010; 노지현 2011; 박옥남 2011). 이들 연구에서는 특히, 정보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목록 관련 개념과 기능, 업무의 변화, 그리고 이에 대비한 목록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조직 실무에 있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목록규칙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료조직의 전공 수업은 현장에서의 적용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RDA를 도입한 전공 목록 수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현장사서들이 생각하는 전공과목 실용성 평가” 연구에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5개 도서관 관중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과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7.47%에 달하였다. 그리고 교과목 내실화 방안으로 교육주체의 최신성, 교육 내용의 전문성, 교육 강사의 전문성 및 자질, 교육교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안인자 외 2012, 376-377). 목록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주체의 최신성을 위해 RDA와 같은 새로운 목록 규칙에 대한 교육 방안이 설계되어야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교수자 확보와 전문적인 교육교재의 마련 등 RDA 교육에 대한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전공 학생이 아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RDA 교육훈련에 대한 연구가 있다(백지원 2013, Tosaka and Park 2014, Park and Tosaka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와 교육 대상자는 다르지만, RDA 교육의 필요성,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요구, 교육 진행 방법 등 직무교육으로서의 교육훈련 방식과 내용의 설계 및 실행의 내용과 방식을 제공해주므로, 향후 전공 학생들의 교육 과정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다.

한편, RDA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참고자료로, 목록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목록 초심자를 위해 설계된 LC의 “Descriptive Cataloging Using RDA”라는 학습자료가 있다. 이 강의안은 이론 모듈 2개, 실습 모듈 2개, RDA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에 대한 모듈 5개 등 총 9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LC 2015). 그런데 이론에 해당하는 모듈 1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목록의 기본 개념과 원칙, 다양한 기술규칙, MARC과 같은 구조표준을 모두 포괄하므로, 이것만해도 사실상 문헌정보학 학부 교육에서 거의 한 학기 전체를 투자해야만 다룰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공 교육으로서 RDA를 도입한 정보조직 교육 모형은 시간 제약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2. 목록 교과와 RDA

2.1 목록 환경변화와 RDA 교육

근래의 도서관계는 과거 수십 년간 정보조직

을 지탱해온 대표적인 두 축인 기술표준과 구조표준의 측면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표준인 RDA가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발표되었고, 이렇게 개정된 RDA는 그 특성에 맞는 새로운 구조표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RDA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도서관 외부의 정보 세계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목록에 대한 지식과 업무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조직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목록 환경의 변화에 국내의 목록계 역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RDA라는 목록규칙의등장이 국내의 목록계에 당장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내에서 서양서의 목록을 위해 LC나 OCLC의 서지레코드를 반입하여 카피 편목을 하는 상황이라는 것과, 국내의 서지제어의 이론과 업무가 북미의 서지제어활동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도 수년 내에 RDA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현재의 전공 학생과 실무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의 도서관 현장에서 RDA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내용과 도서관 현장과의 관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전공 졸업생들이 도서관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어떤 능력을 요구 받을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의 전공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될 1~3년 정도 후에는 AACR2와 RDA를 기반으로 작성된 서

지레코드가 공존할 가능성이 크다. 졸업생들이 일하게 될 현장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RDA 교육훈련의 기회는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대학에서 전공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서직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내부 전문성 강화, 최소 이수 학점제, 필수과목 지정, 전문대학원 제도, 교육과정 인증제, 국가 시험제 등이 대표적인 사서자격제도 개선안으로 제시되어 왔다(윤희윤 2016, 8-10). 이 중 어떠한 안이 채택되더라도 현재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사서 전문성 강화 방안은 사서자격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내실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2.2 RDA 교육 사례

RDA의 전공 교육사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정규 교과목인 정보조직 관련 과목 중 세부 주제의 하나로서 RDA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업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2.1 정규 교과목

정규 과목에서 시행되는 RDA 관련 강의 내용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아직까지 매우 적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8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된 정보조직 관련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RDA를 다루고 있는 대학은

North Carolina, Michigan, Rutgers 등 3개 대학이며, 주 내용은 RDA 개론 및 AACR2와 RDA의 비교인 것으로 밝혀졌다(최상기 외 2013).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웹으로 공개된 미국 주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정보조직 관련 강의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결과, RDA의 교육은 대부분 정보조직 관련 과목에서 1~2주를 할애하여 RDA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일례로,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UNC)의 Schoo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의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이후 개설된 과목 중 한 번이라도 RDA가 다루어진 과목은 'Organization of Information'과 'Cataloging Theory and Practice'라는 두 과목이다. 'Organization of Information'은 해마다 2~3개의 분반이 개설되는데, 2013년에는 2개의 반에서 RDA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고, 2014년에는 두 명의 교수자가 3개의 반을 운영했는데, 2개 반에서는 RDA가 다루어지지 않았고, 1개 반에서는 메타데이터를 다루는 주에 RDA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개 반을 맡은 교수자들이 RDA와 MARC을 하나의 주제로 하여 한 주로 편성하였다. 또한 'Cataloging Theory and Practice'라는 과목에서는 2013년 봄 학기에 2주, 즉 6시간을 할애하여 RDA의 개념과 RDA를 적용한 단행본 목록을 다루었다. 2014년 봄 학기와 2015학년 가을학기에는 총 4주 동안 RDA 기본 개념, 단행본 목록 작성(2주), 연속간행물 목록 작성 등으로 수업을 편성하였다.

UNC의 사례를 종합하면, 자료조직 관련 두 과목에서 RDA를 다루고 있으며, '정보조직'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2014년 이후 MARC 혹은 메타데이터라는 개념과 묶어서 1주 동안 간략하게 다루어졌으며, 동일한 과목이라도 교수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목록 이론과 실습' 과목에서는 최근 RDA에 대한 수업 시간이 확대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문헌정보학 교과목 설정에 관한 연구(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최상기 외 2013)에서 국내 25개 문헌정보학과 학부 강의계획서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목록학 수업의 개요에서는 RDA가 2회 등장하였고, 강의록에 나온 제목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 내용에서는 RDA가 2번, RDA 개념, 주요내용, 특징과 활용, 구조 등의 용어가 각각 1~6회 등장하였다. 이는 수업 개요에서 KORMARC 실습이 12회 등장한 것, 그리고 수업 내용에서 KORMARC 실습 19회, KCR 소개와 활용이 16회, MARC의 이해 및 목록기술과 ISBD가 각각 15회 등장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154-159).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RDA에 대한 비중이 아직까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RDA 교육에 대한 최근의 현황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있는 2013~2016년의 문헌정보학 정보조직 관련 과목의 대학별 강의계획서 3개 사례를 각각 연도별로 조사하였다. 또한 웹상에 강의계획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대학 5곳의 정보조직 강의 담당 교수자에게 직접 문의하였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 국내

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첫째, 조사 대상 중 RDA를 강의하고 있는 대학은 모두 1~2주(약 3~6시간)를 RDA 관련 내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근래의 RDA 교육의 비중은 선행연구(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한 대학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에는 목록 과목에서 RDA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교수자가 바뀐 2015년, 2016년에는 오히려 RDA에 관한 내용이 제외되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목록 과목에 RDA 수업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혹은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교수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셋째, RDA를 강의계획서 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경우일지라도 RDA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FRBR의 개념은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RDA가 본격화되는 정도에 따라 목록 수업에서 RDA 관련 내용이 좀 더 보편화되거나 지금보다 명시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넷째, 수업의 내용 구성에 있어 RDA에 적합하게 목록 교과가 재편성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목록 과목의 구성에 RDA의 기본적인 내용과 특성 등이 단순 추가되는 방식으로 강의계획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 대학에서 RDA 교육은 전반적으로 본격화되지 않은 단계이며, 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교수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정도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2.2.2 특수 프로그램

정규 수업과는 별도의 RDA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유형이다. UNC는 2011-2012학년도 자료조직 영역의 커리큘럼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RDA 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전공 학생들에게 RDA를 교육하기 위한 특별 과정 "RDA Boot Camp"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Veitch et al. 2013). 이 과정은 3명의 전공 교수와 자료조직에 관심 있는 석사과정생 1명이 함께 설계했으며, 이 과정의 참여 대상은 자료조직과 메타데이터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다. 대학원 과정의 'Organization of Materials'와 'Metadata Architecture and Applications'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대학원 과정의 'Organization of Information'을 수강하는 학생은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강생들 이외에 UNC- Chapel Hill 도서관의 편목 전문 사서 9명이 피드백과 제안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참여하였다.

교육 시간은 수업 외의 시간을 할애하여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참석자들은 교육과정 참여에 앞서 각자 2~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분량의 선행 학습을 수행할 것을 요청 받았다. 여기에는 미리 이 교육과정을 위해 마련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읽기자료 3~4건을 읽는 것과 LC의 RDA 사이트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RDA Toolkit에 접속하여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례는 대학원 수준에서 정규 교육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학부 교육 위주의 국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RDA 교육의 필요성, 선수 지식의 종류, 정규 수업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특수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3. RDA 교육에 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 분석

3.1 교수자의 의견

University of Missouri의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 Learning Technologies 주관으로 2011년 6월 30일~7월 1일의 이틀에 걸쳐 Cataloging Curriculum Summit이 개최되었다. 이 토론에는 미국 전역에서 목록을 가르치는 10명의 교육자들이 참여하여 목록 교육과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토론의 한 부분으로, 참석자들은 목록 수업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들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 하여 RDA를 포함한 30여개의 대표적인 주제를 도출해냈다. 그런데 참석자들은 이러한 30여개의 주제를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매주 90시간을 할애한, 178주로 구성된 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산정하였다(Moulaison 2011). 이는 현재 '목록'이라는 과목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다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는지를 짐작케 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정된 교육 시간 내에서 RDA라는 새로운 목록규칙이 가져올 내용의 추가나 변화가 큰 도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 교육과정에서 RDA를 포함시키기 위한 토론 사례가 있다. OLA(Ontario Library Association) Super conference에서는 대학교

육 과정에서 RDA를 교육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2012년 6월 "RDA in the Curriculum"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교수들은 지금까지의 RDA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교육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는 RDA 개발과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RDA 교육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진 거의 유일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75개는 24개의 소주제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다양한 내용이 섞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전공 교육 방안 모색의 관점에서 다시 그룹화 하였다. 토론 내용의 양으로 볼 때 'RDA 교육 내용의 구성', 'RDA 교육 과정과 방법의 설계'의 두 가지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 외에는 RDA 교육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이론과 실습수업의 관계, 구조표준과의 관계, 교육 수요자의 여건과 요구, 취업에 필요한 역량, 목록 규칙간의 관계 등에 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토론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특히 국내에서 RDA 교육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내용 구성에 관한 사항이다. RDA가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구체적인 규칙 자체를 아는 것보다 정보조직이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정보를 바라보고 다룰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단순히 목록 규칙을 암기하거나 적용하기보다는 RDA가 나오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목록 작성 과정에서 생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왜 하

는지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FRBR의 개념과 어휘에 대한 이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에 대한 이해, 목록 레코드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이해 등이 이전보다 더욱 강조되거나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과 내용 구성에 관한 판단은 학생이 졸업했을 때 직면하게 될 환경 및 취업에 필요한 역량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 내용 구성은 도서관 목록 업무의 현황, RDA의 적용 정도와 보급 정도에 따른 서지제어 환경에 대한 예측, 취업 후 교육훈련의 가능성에 따른 지식 소유 필요성, 신규 졸업자에 대한 기관의 기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전공 교육 현실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한 내용으로는 목록 규칙들 간의 교육 순서, 기존 목록규칙과 RDA의 비중, 정보조직을 다루는 과목들 간의 기초, 심화, 필수, 선택 과목 등의 설정 여부와 방법 등이 있다. 'RDA in the Curriculum'에서는 학생들이 두 가지 목록규칙을 동시에 배우게 된다면 혼란스러울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AACR2와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RDA를 배우는 것 보다, 오히려 AACR2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교육 방식으로 RDA의 패러다임을 배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주장되기도 했다.

셋째, RDA와 구조표준의 관계이다. RDA는 레코드 생성을 위한 구조표준과 결합되는데, RDA가 도입되기 시작한 현재에도 MARC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RDA를 수용할 수 있도록 MARC도 계속 갱신되고 있다. 전공 교육

에서도 MARC에 계속 큰 비중을 두고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SBD의 구두법도 계속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RDA를 어떤 구조표준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육할 것인가 하는 점이 논의되어야 한다. RDA의 보편화와 그에 적합한 구조표준으로의 전환에 최소한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전공 교육에서는 RDA와 구조표준간의 관계성에 대해 어떤 수업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넷째, RDA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목록의 개념도 어려워하지만, 학생들은 그래도 RDA를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위에 대해 갖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음에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대학에서의 RDA 교육의 과정과 내용이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따라 설계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목록관련 과목이 개설될 수 있을지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에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목록 교육에 할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국내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국내의 경우 RDA를 도입한 교육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 과정에서 의견을 나눈 정보조직 교수자들의 의견은 향후 국내에 RDA 방식의 목록규칙이 도입될 것은 기정사실화 하되, 전공 교육에서의 도입 시기나 방식 등은 RDA의 영향을 받아 개정될 KCR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수렴되었다. 그

리나 RDA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국내 교수자들은 목록 관련 수업 중에 RDA의 주요 개념과 특징 정도를 소개하는 정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 학습자의 요구 분석

3.2.1 조사 설계

학습자의 요구 확인을 위해서는 설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목록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확인하고, 그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고, 교육 시간의 배분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본 연구자가 2014년 2학기에 강의한 A, B 대학 두 곳의 목록 과목 수강생이다. A, B 두 대학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이며 연구 중심 대학이다. 두 대학 모두 정보조직 중 목록을 한 학기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한 학기 내에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설문조사는 개강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014년 9월 26일~10월 2일의 약 1주일간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9월 한 달간 정보조직의 개념, 목록의 개념, 기능, 주요 용어를 비롯하여 목록 규칙의 기본 개념과 발전에 대해 학습한 상태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목록의 개념, KCR, RDA, AACR 등 목록규칙이 갖는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목록규칙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므로 목록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곧 목록규칙에 대해 배울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안내가 제시되었다.

RDA는 2013년 3월부터 미국의회도서관 및 주요 국립 도서관에서 전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KCR의 다음 버전은 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 년 내에 현장에서 정보전문가로 일하게 될 여러분의 학습 요구에 대해 의견을 묻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밝혀주시면 수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A, B 대학에서 해당 학기에 목록 수업을 수강한 학생 각 38명, 4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각 대학의 온라인 강의게시판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 메뉴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마련되었다.

A, B 대학에서는 각 30명과 40명이 응답하여 78.95%와 83.33%의 응답률을 보였다.

3.2.2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된 9개의 설문 항목별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은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 가장 잘 알고 싶은 목록규칙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었다. KCR 학습에 대한 요구가 평균 58%로 가장 높았고, 필요한 것은 모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평균 32%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RDA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에 불과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번 학기 수업 내용으로 RDA

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 문항에 대해서도 A, B 대학 모두 항목별로 동일한 순위로 응답하였는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A대학이 B대학에 비해 더 높았다(〈표 1〉 참조).

세 번째 질문은 앞선 질문에서 RDA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주요한 이유를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복수 응답이 허용되었다. 이 결과에서는 A, B 대학 모두 '최신 경향을 파악하여 졸업 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표 2〉 참조). A 대학은 졸업 후의 미래를 대비한다는 구체적인 효용성의 측면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로 높았다. 이에 비해, B 대학에서는 세 가지 선택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28~30%로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네 번째 질문에서는 RDA 교육이 필요치 않다고 답한 경우, 그 주된 이유를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중복 응답이 허용되었다. RDA를 해당 학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로 〈표 3〉과 같이 모든 선택지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A 대학에서는 세 개의 선택 항목이 동일한 비율로 응답되었는데, 2번 질문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선택한 3명의 응답자가 세 개의 항목을 모두 중복하여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B 대학에서는 한 학기에 다루는 학습

〈표 1〉 RDA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항목	대학	A	B	평균
필요하다 (3번 문항으로)		24(80%)	24(60%)	70%
필요하지 않다 (4번 문항으로)		3(10%)	7(18%)	14%
잘 모르겠다		3(10%)	9(23%)	16.5%

〈표 2〉 RDA 수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

항목	대학	A	B	평균
최신 경향을 파악하여 졸업 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18(72%)	18(39%)	18(56%)
한국목록규칙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10(40%)	14(30%)	12(35%)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외국의 주요한 목록규칙을 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2(48%)	13(28%)	12.5(38%)
기타		1(4%)	1(2%)	1(3%)

〈표 3〉 RDA 수업이 불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

항목	대학	A	B	평균
아직까지 국내 적용의 방식과 시기가 불확실하므로		3(60%)	5(28%)	44%
현행 국내 목록규칙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3(60%)	6(33%)	46.5%
한 학기에 다루기에는 학습량이 과중해지므로		3(60%)	7(39%)	49.5%
기타		-	-	-

량의 과중을 우려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다른 항목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결국, RDA 수업을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들은 주어진 세 개의 항목의 내용에 비교적 고르게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한 학기에 KCR과 RDA를 둘 다 다룬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순서와 방식에 관한 것이다. A, B 두 대학의 수강생 모두 KCR을 먼저 다루고 나서 RDA를 다루는 것을 약 70~80% 정도의 비율로 선호하였다. 이에 비해 RDA를 먼저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평균 1.67%만이 선호함으로써,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KCR과 RAD를 관련 주제끼리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A, B 대학의 응답자가 각각 23%와 8%의 비율로 찬성하여 선호도의 차이가 있었다(〈표 4〉 참조).

A 대학 학생들이 5번 문항에 대한 응답의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한 응답은 25건이 나왔다. KCR을 먼저 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18건의 응답을 그 내용별로 범주화하면,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므로',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KCR을 먼저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한국어라서 익숙하므로', '같이 하면 헛

갈릴 것 같아서'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두 목록규칙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의견 5개는 '모르는 개념이 많으므로 비교해서 배우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는 것으로 거의 동일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한꺼번에 학습해야 할 양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표현하였다.

여섯 번째 질문은 이번 학기 수업 이전에 학생들의 목록규칙에 대한 선행 지식의 정도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A, B 대학의 응답자 모두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등 목록규칙을 거의 처음 접해보는 경우가 70% 내외로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이번 학기 이전에 본인의 RDA에 대한 선행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A, B 대학 모두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이 70% 가까이 되었고,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20~25% 정도를 차지했다. 반면, AACR2가 개정된 것이라는 사실 이상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은 두 학교 모두에서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RDA는 학생들에게 기초부터 새롭게 접근해야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이번 학기를 제외하고, 졸업까지 남은 학기를 묻는 문항이었다. 이에 대

〈표 4〉 목록규칙 수업의 순서에 대한 응답

항목	대학		
	A	B	평균
KCR을 먼저 한 후, RDA를 한다	20(66.67%)	31(78%)	72.33%
RDA를 먼저 한 후, KCR을 한다	1(3.33%)	-	1.67%
KCR과 RDA를 공동된 주제별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7(23.33%)	3(8%)	15.67%
잘 모르겠다	2(6.67%)	6(15%)	10.83%
기타	-	-	-

해 평균 13%의 응답자는 마지막 학기라고 답했고, 60%에 달하는 응답자가 2학기 미만의 수업을 남겨둔 3~4학년인 학생들이었다. 이와 같이 두 대학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3~4학년이 되어 목록 수업을 수강하며, 6번, 7번 문항의 응답으로 보았을 때 해당 학기 이전에는 목록에 대한 지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

아홉 번째 질문은 이번 학기 목록 수업에서 이론과 실습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 공부하고 싶은지를 묻는 것으로, A, B 대학 모두 이론과 실습을 동등하게 진행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다. 단, A 대학은 실습의 비중이 높기를 바라는 응답이 없는 반면, B 대학의 경우 실습의 비중이 높기를 바라는 응답이 23%로 나타나, 두 학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2.3 시사점

설문조사의 결과 중 RDA 교육모형 설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하고 싶은 목록 규칙의 종류이다. A, B 대학의 학생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록 규칙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각 항목에 응답한 비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선호하는 순위는 'KCR', '필요한 것은 모두', 'RDA', 'AACR'의 순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향후 KCR이 RDA와 유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한국식 목록 규칙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국내용이든 국제적인 것이든 필요한 지식은 모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목록 규칙 학습의 순서에 대한 것이다. KCR과 RDA를 둘 다 다루는 경우라면 KCR

을 먼저 익히고 난 후 RDA를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는 의견이 평균 72%에 달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설계시, 부족한 수업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목록 규칙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학습하는, 보다 구조적인 학습 방법에 대한 선호를 가정하였다. 그러나 조사에서 KCR과 RDA를 공통된 항목별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선호는 평균 16% 정도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즉, 현재 통용되는 국내, 국제적인 목록 규칙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두 가지를 병행하기보다는 기반이 되는 목록규칙을 하나 익히고 난 후 다른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4.5배 정도의 더 높은 선호가 있었다.

따라서 목록규칙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교육훈련에서 목록 규칙간의 항목별 비교나 개념 간 비교의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목록규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순차적인 학습 방식이 선호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RDA를 해당 학기 내에 다루어야 한다는 응답이 평균 70%에 달했다. 이는 '필요 없다'는 응답(평균 14%)과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평균 1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였으므로 학생들은 RDA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 학기에 다루는 과중한 학습량으로 인해 RDA 내용의 추가를 꺼려할 수 있다는 연구자의 우려는 설문 조사 결과에서 특별히 부각되지 않았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 설계시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갖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목마다 '기타', '잘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답변의 비율이 높을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견도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태도와 관심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문헌정보학 교육 과정 설계에서 교육 수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지만, 두 대학의 학생들은 평소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수업 방식과 내용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는 점에서, 교육 대상자인 학생들의 응답 및 명확한 의사 표시 여부는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4년제 연구중심 대학 두 곳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앞선 가정과는 달리 응답 학생들은 모든 문항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오히려 수업에 대한 기대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RDA가 해당 학기 내에 필요한지에 대한 응답(평균 16.5%)과 RDA 수업의 순서와 방식에 관한 응답(평균 10.8%)에서 만 10%를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수업 설계에 있어 학생들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제한된 시간 내에 이론을 익히기 위하여 실습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설문조사의 결과, 두 학교 모두 이론과 실습의 비중을 동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므로 이론과 실습이 모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학교 학생들이 이에 대해 남긴

자유응답 내용으로는 '어떤 방식이든 잘 이해되면 좋다', '강의는 이론을 위주로 하고, 과제는 실습을 위주로 하면 좋겠다', '이론을 위주로 하고, 실습은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론과 실습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모형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4. RDA 교육 모형 개발

4.1 RDA 교육 모형 개발의 요건

앞선 다양한 조사 및 연구의 분석 결과, RDA 전공 교육 모형 개발을 위한 주요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한정된 교육시간에 대한 고려이다. 전공 교과로서 목록에 할애할 수 있는 시수는 교과과정상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UNC의 사례에서도 Organization of Materials II라는 과목에서 RDA를 교육하기 위한 방법 5가지를 제시하였으나, 정작 문제는 그 많은 내용을 학기 내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밝힌바 있다.

근래 국내 대학의 전공과목 편성 현황을 볼 때 목록에 대해 대체로 1~2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RDA를 포함하는 목록 교육의 구상에 있어서 목록에 대한 기초부터 적용, 때로는 고급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까지를 1~2학기 내에 모두 포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공 교육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의 수 및 관련

과목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내 문헌정보학 자료조직 분야 과목 구성의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이론과 실습으로 1차적인 구분을 한 후 경우에 따라 심화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다양하고 많은 학습 내용에 대한 고려이다. 목록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일상생활을 통해 접하거나 수업 이외의 경로로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전문적인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목록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고학년일지라도 목록에 대한 기본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목록 수업에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록 수업에서 다루어야 하는 교육 내용은 전문적이고 그 양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학생들에게는 선행 지식이 거의 없으므로 매우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목록의 작성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 연계되어 학습되어야 하므로 교과과정 설계시 그 학습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RDA는 목록 규칙 이상의 함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목록 규칙의 차원에만 국한하여 교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목록을 배우는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도서관 및 다양한 정보 관련 분야로 진출하며, 편목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목록 관련 지식은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성의 핵심이며 정보서비스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도서관 전체 업무 수행과정·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공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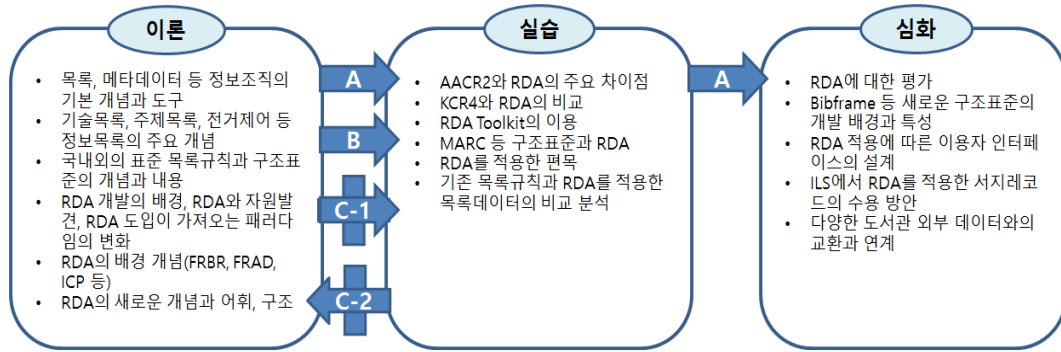
들이 전공 관련 분야로 진출한다는 것을 가정하되, 목록이 모든 전공 학습의 기초이자 다른 업무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목록 수강생들에게는 정보조직 전문가에 해당하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일반 정보전문직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지세계 조직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좀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내용과 수준의 교육이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수와 유형에 따라 점차 정보조직 전문가가 알아야 할 전문적인 내용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4.2 RDA 교육 모형 설계

앞선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목록 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전문적인 지식을 익혀야 할 뿐더러, 실무까지 익힐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도 그러한 요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공 교육에 있어서 강의 내용의 구성과 순서, 방법 등 다각도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RDA 전공 교육 모형의 내용과 순서는 <그림 1>과 같다. 이 모형은 개설되는 목록 관련 과목수를 기준으로 A(3과목), B(2과목), C(1과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림 1>에서 각 모듈간의 정·역방향 화살표는 전공 교육 모형 실행의 순서를, 덧셈표시는 모듈간의 통합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RDA를 도입한 문헌정보학 전공 목록 교육 모형

제안된 목록 교육 모형의 유형별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A유형은 목록 수업을 3과목 이상 개설하는 것이다. 이는 RDA에 대한 이론을 기존의 목록 이론과 함께 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습과 심화 과정을 각각 별개의 과목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이 실습으로 연결되는 가장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학습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습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DA 관련 심화 내용으로는 주로 RDA에 대한 평가, Bibframe의 개발 배경과 상황, RDA 적용에 따른 이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 ILS의 RDA를 적용한 서지 레코드수용 방안 등 RDA의 적용에 따른 구조 메타데이터와 시스템 차원의 대응 및 향후 RDA 기반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특히 RDA의 실현과 실질적인 혜택을 가능케 하려면 RDA 적용 결정에 앞서 RDA와 관련하여 시스템 벤더 및 OCLC 등과 같은 서지 레코드 제공 네트워크와의 업무 관계 및 적용 가능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사서들이 RDA에 대해 우려하고 미심쩍어

하는 내용들로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RDA 적용의 효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향후 과제로 제시되는 것들이다.

A유형의 제한점은 국내에서 목록에 3과목 이상을 배정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드물다는 것이다. 3과목 이상이 배정되는 경우라도 목록 작성 실습 위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RDA 중심의 목록에 특화된 교과 내용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 A유형과 같은 심화과정은 대학원 과정에서 고급 정보조직 강좌로 개설하거나 정보검색 및 메타데이터의 관련 주제와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B유형은 목록 수업을 2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론과 실습과목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육 내용을 배치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 학기 내에 이론을 모두 다루어야 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국내 학부의 이론 과목에서는 RDA 도입 이전과 마찬가지로, 목록, 목록규칙, 메타데이터 등 정보조직의 기본 개념 이해, 기술목록, 주제목록, 전거제어 등 정보목록의 주요 개념 이해, 주요 목록규칙, 구조 포맷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RDA

개발의 배경, RDA의 배경 개념(FRBR, FRAD, ICP 등), RDA 도입이 가져오는 패러다임의 변화, RDA의 새로운 개념과 어휘, 구조 등이 교육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실습 과목에서는 RDA를 적용한 편목의 실재를 익히기 위하여 AACR2와 RDA의 주요 조항별 차이점, KCR4와 RDA의 비교, RDA Toolkit의 이용, 서지레코드의 산출을 위한 MARC과 RDA의 관계 등이 포함될 것이다.

B유형은 기존의 교육 내용에 새로운 목록 규칙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서로 다른 목록 규칙을 순차적으로 함께 배우는데 따른 혼란과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목록규칙 및 구조화 방식에 관한 교육 내용과 새로 추가되는 내용간의 효과적인 내용 편성이 중요하다.

셋째, C유형은 학제에 따라 목록 관련 과목을 한 과목만 개설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실제 수업의 진행에 있어 시간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헌정보학 전공과목 중에서도 목록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요구가 크고, 실제 현장에서 신입 사서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목록 실무 능력을 갖출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특히 이 유형에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수업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과목에서 RDA에 대한 내용까지 추가로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므로, 앞서 이론과 실습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된 B유형의 내용과 순서에 대한 전략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RDA 교육훈련은 실무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KCR이나 AACR2를 기준으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기존의 목록 규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RDA를 교육하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런데 목록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전공 학생들이 KCR과 AACR2와 같이 자료유형별로 구조화되어 있는 목록규칙을 학습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기존의 체계와는 전혀 다른 FRBR 기반의 RDA를 학습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어떠한 개념에 대한 체계가 일단 한 번 머릿속에 고착되고 나면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5주 내외의 한정된 시간 동안 목록을 접하게 되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조만간 규범이 될 RDA를 기본으로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시적 규범인 KCR과 AACR2 등의 목록규칙을 교육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본적인 목록규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전략적 방식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C유형의 방식은 시간적 제약과 학습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동시에 RDA가 기존 수업 내용에 단순히 부가되는 개념으로 간주되어 소개 정도에 그치거나, 다루어야 할 개별 주제가 방대하여 모든 주제가 피상적으로 다루어질 우려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실습으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방법에 변형을 가하는 C-2와 같은 방식을 추가로 구상하였다. 교육의 순서는 C-1과 같이 이론을 익히고 실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겠으나, 한정된 시간에 필요한

개념과 실무를 익히기 위해서는 필요시 실습을 먼저 하고, 그에 기반이 되는 이론 수업을 하는 C-2와 같은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습과 이론 수업의 역순서 진행은 학생들이 실제로는 실습을 통해 이론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자의 강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며, OLA Super Conference의 토론 과정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한정된 시간 내에 새로운 목록 규칙의 이론과 실무를 보다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이론적 기반이 부족한 채 기능적인 측면만 강조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모형을 적용할 때에는 유형별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4.3 강의계획안 설계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부 과정 교육에 해당하게 될 유형은 RDA 전공 교육 모형 중 B 또는 C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와 C유형을 바탕으로 RDA를 도입한 정보조직 강의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중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2013)의 연구에서는 국내 각 대학의 목록 강의계획서 23건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토대로 정보조직론(목록) 강의를 위한 총 14주의 강의 일정을 개발했는데, 여기서 RDA는 1주 동안 그 개념과 내용, 특징과 구조를 다루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2013)에서 제시된 강의계획안(이하 '기준안'이라 칭함)을 RDA의 본격 도입 이전의 표준적인 강의계획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비하

여 향후 RDA의 전면적인 도입을 가정한 강의 계획안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표 5>는 기존 안과 본 연구의 제안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음영 처리된 부분은 RDA가 도입된 강의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4.3.1 B유형의 강의계획안

B유형을 기반으로 한 강의계획서 설계의 핵심은 기존 목록규칙 및 구조화 방식에 관한 교육 내용과 새로 추가되는 내용간의 효과적인 내용 편성에 있다. B유형의 주요한 내용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B유형은 이론과 실습 학기가 분리되어 설계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위해 매 학기마다 이론과 실습을 적절히 병행하도록 하였으며 사실상 선·후행 과목의 성격을 갖는다.

둘째, 기존의 목록규칙과 RDA는 앞으로 수년간 공존할 것이므로 두 가지 모두 교육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RDA in the Curriculum" 2012). 학생들 역시 기존의 목록규칙에 대한 학습 요구가 크고, 필요한 것은 모두 배우되, 현행 목록규칙을 우선적으로 학습한 후 RDA를 익히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목록규칙인 KCR, AACR 등을 모두 학습한 후, RDA를 순차적으로 익히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론 과목에서는 목록규칙 간의 비중이 있어서 KCR과 AACR은 기존 안과 같이 각 1주씩으로 하되, RDA는 4주로 확대하였다. 또한 이들 목록규칙 및 편목 방식을 상호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이론과 실습 학기에 각각 1주씩 배치하여 목록규칙간의 상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셋째, 실습 과목에서는 RDA를 실제적으로 파

〈표 5〉 RDA를 도입한 정보조직(목록) 강의계획안

유형 주차	RDA가 간략하게 포함된 강의계획안*	RDA를 전변 도입한 강의계획안				
		B유형 기반(연계과목)		C유형 기반(단일과목)		
		이론	실습	C-1	순서	C-2
1	목록의 이해 - 목록의 의의 - 목록규칙의 역사	목록의 이해	정보조직과 목록의 주요 개념 이해	목록의 이해	① ①	목록의 이해
2	목록규칙과 목록기술 - 목록규칙의 이해 - 기술목록의 이해	목록규칙과 기술목록의 이해	자원 기술을 위한 KCR 적용 실습	메타데이터, 주제명목록, 전거제어 등 정보조직의 주요 개념	② ②	메타데이터, 주제명목록, 전거제어 등 정보조직의 주요 개념
3	서지관계유형과 표목 - 서지관계유형 - 표목	KCR	자원 기술을 위한 KCR 적용 실습	KCR, AACR 등 국내의 표준 목록규칙의 이해	③ ③	KCR, AACR 등 국내의 표준 목록규칙의 이해
4	MARC의 이해 - MARC의 개념과 발전, 레코드의 구조	AACR	메타데이터의 이해와 사례 분석	MARC 등 구조표준의 개념과 내용	④ ④	MARC 등 구조표준의 개념과 내용
5	한국목록규칙 - 한국목록규칙의 이해와 실습	RDA의 배경 개념(FRBR, FRAD, ICP 등)	MARC 레코드 작성	MARC 레코드 작성 실습	⑤ ⑤	MARC 레코드 작성 실습
6	KORMARC - KORMARC 형식의 개요 및 데이터필드 이해	RDA의 배경 개념(FRBR, FRAD, ICP 등)과 영향	KORMARC, MARC21의 작성과 비교 분석	RDA의 배경 개념(FRBR, FRAD, ICP 등)과 영향	⑥ ⑩	KCR4, AACR2와 RDA의 주요 차이점
7	KORMARC 실습 - 데이터필드 입력 실습	RDA의 새로운 개념과 어휘, 특성	RDA의 구조와 활용(RDA Toolkit)	RDA의 새로운 개념과 어휘, 특성	⑦ ⑭	기존 목록규칙과 RDA를 적용한 목록데이터의 비교 분석
8	영미목록규칙 - 영미목록규칙의 이해 - 영미목록규칙의 실습	RDA의 새로운 개념과 어휘, 특성	RDA의 구조와 활용(RDA Toolkit)	RDA의 새로운 개념과 어휘, 특성(주제목록, 전거제어 등 포함)	⑧ ⑨	RDA의 구조와 활용(RDA Toolkit)
9	MARC21 - MARC21 형식 개요 및 데이터필드 이해	KCR4, AACR2와 RDA의 주요 차이점	구조표준과 RDA	RDA의 구조와 활용(RDA Toolkit)	⑨ ⑥	RDA의 배경 개념(FRBR, FRAD, ICP 등)과 영향
10	MARC21 실습 - 데이터필드 입력 실습	구조표준의 개념과 유형	RDA 적용을 위한 MARC의 변화	KCR4, AACR2와 RDA의 주요 차이점	⑩ ⑦	RDA의 새로운 개념과 어휘, 특성
11	RDA - RDA의 개념과 내용, 특징과 구조	MARC의 이해	RDA를 적용한 편목	RDA 적용을 위한 MARC의 변화	⑪ ⑧	RDA의 새로운 개념과 어휘, 특성(주제목록, 전거제어 등 포함)
12	메타데이터 - 메타데이터의 개념 - 메타데이터의 유형	MARC의 이해	RDA를 적용한 편목	RDA를 적용한 편목	⑫ ⑪	RDA 적용을 위한 MARC의 변화
13	전거제어와 주제명목록 - 전거제어 - 주제명표목	서지관계유형과 표목	기존 목록규칙과 RDA를 적용한 목록데이터의 비교 분석	RDA를 적용한 편목	⑬ ⑫	RDA를 적용한 편목
14	통합MARC - 통합MARC 개요 - 통합MARC 실습	전거제어와 주제명목록	전거제어 및 주제명목록 사례 분석 및 실습	기존 목록규칙과 RDA를 적용한 목록데이터의 비교 분석	⑭ ⑬	RDA를 적용한 편목

*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2013, 14-15)에서 제시된 안임

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7주에 걸쳐 RDA 수업을 편성하였다. 주요 학습 내용은 RDA Toolkit을 이용하여 RDA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구조표준과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RDA

를 수용하기 위한 MARC의 변화를 이해하고, RDA를 적용하여 편목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 등이다.

이때, 전공 수업에서 RDA Toolkit의 구비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RDA는 이전 목록규칙과의 링크, 규칙 내에서의 관련 조항간의 참조 등 기본적으로 전자 형태로 활용되는 것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외부의 모범 실무나 실무 규칙 등 외부 자원과의 연계, 다양한 내용을 부록으로 따로 편성한 편집 등을 볼 때, 전자본인 RDA Toolkit이 RDA 인쇄본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정보조직 도구로서의 기본 형태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DA 교육을 인쇄본으로 할 것이냐, RDA Toolkit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점이 교육 설계 및 수행에 있어서 이슈가 될 수 있다. RDA 데이터베이스의 국내 대행사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RDA Toolkit을 구독하는 대학이 2016년 2월 기준으로 2곳에 불과하므로 교육 방식에 적합한 도구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4.3.2 C유형의 강의계획안

C유형은 이론과 실습을 한 과목으로 편성하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강의계획안은 기존 안에 비해 RDA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B유형에 비해서 절반에 불과한 수업 시간을 고려하여 압축적, 효과적으로 강의를 편성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C유형에 바탕을 둔 강의계획안은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RDA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이해나 조항을 적용한 실습보다는 정보조직의 패러다임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개념 이해에 중점을 두어 포괄적인 정보전문직에 종사할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C유형의 주요한 내용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안에서 4, 7, 9, 14주차의 총 4주로

설계되어 있는 MARC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2주로 축소 편성하였다. 통합MARC이 발표되고 사용된 지도 이미 10년이 넘게 지나 보편화되었으므로 이를 기존 KORMARC과 별개로 다루기보다는 변경된 사항 위주로 내용을 설계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RDA의 시대를 맞아 MARC을 대체하는 구조표준에 대한 논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MARC21에 대한 내용도 별도의 한주를 배정하지 않고 MARC이라는 큰 틀에서 KORMARC과의 상호 차이점과 특성을 이해하는 정도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둘째, 기존안의 12주차의 메타데이터, 13주차의 전거제어와 주제명목록은 강의의 초반인 2주차에 배치하였다. C유형에서 기술표준과 구조표준을 모두 다루고 난 후 강의 막바지에 이러한 개념을 다루게 되면, 한 학기 동안 진행된 내용과 유리되어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기 말 시간에 쫓겨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강의 초반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정보조직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RDA 수업 이전에 필요한 기반 지식을 미리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RDA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전거형의 개념, 주제명에 대한 강조 등과 관련하여 RDA의 새로운 개념과 어휘, 특성을 다루는 8주차에 이러한 개념들을 보다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배치하였다. 기존 안 중 3주차의 서지관계유형과 표목 역시 RDA에서 더욱 강조되는 개념이므로 RDA에 대한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B유형에서 여러 주에 걸쳐 다루었던

개념들이 C유형에서는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설계된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C유형에서는 KCR과 AACR을 한 주에 다루므로 목록규칙 각각을 학습하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이들 목록규칙을 구조표준에 대한 이해와 MARC 레코드 작성 실습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내용과 순서를 편성하였다. 또한 기존 안에서 4주의 수업 내용으로 계획된 MARC에 대한 내용 역시 C유형의 강의계획안에서는 'MARC 등 구조표준의 개념과 내용', 'MARC 레코드 작성 실습' 등 2주로 축소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MARC를 비롯한 구조표준의 문제를 RDA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서 실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RDA 적용을 위한 MARC의 변화', 'RDA를 적용한 편목(2주)', '기존 목록규칙과 RDA를 적용한 목록데이터의 비교 분석' 등 4주에 걸쳐 배치함으로써 RDA 기반의 목록 레코드 작성에 대한 이해와 연습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C유형의 강의계획안에서 RDA는 총 9주로 편성되어 있고, 그 9주 내에는 기존 안이나 B유형에서 각각 별도로 다루어지던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C-2는 기초 개념을 학습한 후, 실습을 수행하고, 실습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세 이론을 다지는 '이론 → 실습 → 이론'의 3단계의 구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였다. 따라서 C-1과 C-2는 내용적 구성은 동일하지만 시행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 <표 5>의 '순서'행은 C-1의 주차별로 ①~⑭의 번호를 매기고, 이 순서가 C-2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C-1과 C-2는 ①~⑤까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나, ⑥~⑭는 다른 순서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C-2는 RDA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 이전에 기존 목록규칙과의 차이점을 먼저 분석하고(C-2의 ⑩), 각 목록규칙을 적용한 레코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C-2의 ⑭),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RDA 수업에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한다.

또한 RDA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총 4주에 걸쳐 다루는 점은 동일하지만, C-1의 ⑥~⑨는 RDA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도구를 접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C-2에서는 ⑨, ⑥, ⑦, ⑧의 순서로 배열되어, RDA Toolkit이라는 도구를 통해 구조와 활용 등의 측면에서 먼저 RDA를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RDA의 주요 특징과 기반이 되는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배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 학기라는 시간의 제약을 가정한 C유형을 설계하였으나, 목록 관련 개념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이처럼 다양한 주제와 전환기적 특수성을 가진 내용들을 한 학기 내에 충실히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RDA in the Curriculum"의 논의 및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듯이, 교육 내용과 성격에 따라 강의와 과제를 적절히 편성하여 시간의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단기적인 해결 방법일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현재의 목록 교육이 처한 이러한 교육 현실에 적합한 전문적인 강의 기법을 연구하여 적용해 보는 시도도 필요할 것이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UNC의 "RDA Boot camp"

의 사례 및 외국의 교육훈련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 교육사례에서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규적인 학습에 앞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교육 자료를 개별적으로 미리 접함으로써 기본적인 선행 지식을 쌓고 본 수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체로 LC와 같은 국가도서관이나 각종 도서관 컨소시움에서 작성되어 무료로 공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기관이 다양한 RDA 교육용 자료를 개발하여 온라인상에 배포한다면, 전공 학생들이 사습용 선행 학습자료로, 혹은 전공 수업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RDA를 도입한 교육과정 설계가 초기적인 단계이므로 이러한 자료들은 각급 교수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노력은 현재 전공 졸업생들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RDA 지식의 불균등함을 완화시키고, 국내 목록계의 실무와 연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목록 관련 이론과 규칙의 도입에 따라 현행 문헌정보학의 정보조직 과목이 직면하게 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 내용, 구조, 방식 등의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타

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RDA의 도입으로 대변되는 정보조직의 변화를 명확히 하고, 문헌정보학의 핵심 교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보조직에서 취득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목록 교육 모형 및 강의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과정 설계를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견과 요구를 파악하고, 현 교육체계의 한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실적으로 전공 취득 학점의 확대, 그 중에서도 목록 교육을 위한 이수 학점의 확대는 교육 내용의 중요성이나 필요성만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교육 기관이 처한 환경 및 제도가 모두 다를 것이므로,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 적용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RDA의 도입으로 야기될 정보조직 환경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전공 교과목의 대응에 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사서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서직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시험 제도나 교과 내용 설계 등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내의 관련 교수자 및 연구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조직 전공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박동철, 심경, 윤정옥. 2009. 사서자격제도 개선 방안 도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193-213.
- [2] 국립중앙도서관. 2011. 『전문사서 경쟁력제고를 위한 문헌정보학 전공과목 정비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 [3]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문헌정보학 전공과목의 교과내용 표준모형 개발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4] 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3. 국내 문헌정보학 주요 교과목 강의계획서 분석 및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1): 143-175.
- [5] 노지현. 2011. 한국의 자료조직 교육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25-245.
- [6] 박옥남. 2011. 정리사서 전문성 재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95-116.
- [7] 백지원. 2013. RDA 교육훈련 동향 분석 및 국내 적용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379-403.
- [8] 안인자 외. 2012. 사서직 진출분야별 전공교과목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373-402.
- [9] 엄영애. 2009. 문헌정보학과 학부 교과과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2): 409-427.
- [10] 윤희운. 2016. “사서자격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1회 미래도서관 포럼』, 2016년 6월 2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3-26.
- [11] 정동열. 2007. 사서자격제도 개선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2): 5-29.
- [12] 조재인. 2010. 차세대 목록 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127-145.
- [13] 최상기 외. 2013. 국내외 문헌정보학 주요교과목 강의계획서분석을 통한 수업내용 및 방법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223-245.
- [14] Buhler, H. 2011. “AACR and RDA: One Cataloger’s Reaction.” In Sanchez, E. 2011. *Conversations with Catalogers in the 21st Century*. Santa Barbara, CA: Libraries Unlimited.
- [15] Hitchens, A. N. and Symons, E. 2009. “Preparing Catalogers for RDA Trainin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7(8): 691-707.
- [16] Library of Congress. 2015. *Descriptive Cataloging Using RDA*. [online]
<<http://www.loc.gov/catworkshop/RDA%20training%20materials/DCatRDA/index.html>>
- [17] Moulaisona, H. L. 2011. *Shared Notes for University of Missouri Cataloging Curriculum Summit*. [online]

- 〈https://drive.google.com/file/d/0B2AUNZ6w_tbkMzUxY2YyNzItZjkZC00OWIyLWEwOTMtNjBiMDQ4MzM2MDA0/view〉
- [18] Moulaisona, H. L. 2012. "A New Cataloging Curriculum in a Time of Innovation: Exploring a Modular Approach to Online Delivery."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0(2/3): 94-109.
- [19] Campbell, G. et al. 2012. *RDA in the Curriculum*. [online]
 〈<http://rdaincanada.wikispaces.com/file/view/RDAintheCurriculumnotes.pdf/348804506/RDAintheCurriculumnotes.pdf>〉.
- [20] Tosaka, Y. and Park, J.-R. 2014. "RDA: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Need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3-25.
- [21] Park, J.-Ran and Tosaka, Y. 2015. "RDA Implementation and Training Issues across United States Academic Libraries: An In-Depth E-Mail Interview Stud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3): 252-266.
- [22]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2011.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U.S. RDA Test Coordinating Committee*.
 〈<http://www.loc.gov/bibliographic-future/rda/source/rdatesting-finalreport-20june2011.pdf>〉
- [23] Veitch, M. et al. 2013. "The UNC - Chapel Hill RDA Boot Camp: Preparing LIS Students for Emerging Topics in Cataloging and Metadata."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51(4): 343-364.
- [24] Young, J. B. and Valerie, B. 2011. "Results of the CRCC Informal RDA Testing Task Force."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9(7-8): 600-60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ck, Dong-Chul, Shim, Kyung and Yoon, Cheong-Ok, 2009.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ibrarian Certification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193-213.
- [2]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1. *A Study on LIS Curriculum to Improvement of Professional Librarians's Competenc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3] Noh, Younghe, Ahn, In-Ja and Choi, Sang-Ki. 2012. *A study on developing LIS standard curriculum model*.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4] Noh, Younghe, Ahn, In-Ja and Choi, Sang-Ki. 2013. "A Study on Analyzing and Developing the Syllabu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ore Courses."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143-175.
- [5] Rho, Jee-Hyun. 2011. "A New Direction in Korea's LIS Education: Focused on the Field of Information Organization."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25-245.
- [6] Park, Ok Nam. 2011. "Rethinking Catalogers'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1): 95-116.
- [7] Baek, Ji-Won. 2013. "Analysis of Trends in RDA On-the-Job Training and Its Application Model in Korea."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379-403.
- [8] Ahn, In-Ja et al. 2012. "A Study of the Curriculum Cours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Career Paths in Korea."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373-402.
- [9] Um, Young-Ai. 2009. "The Changes in the Curricula of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2): 409-427.
- [10] Yoon, Hee-Yoon. 2016. "How to Improve the Professional Librarian System?." *The 1st Future Library Forum*, July 2nd, 2016,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3-26.
- [11] Jeong, Dong-Youl. 2007. "A Study on the Credential System of Librarian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2): 5-29.
- [12] Cho, Jane. 2010. "A Study on the Direction Future of Catalog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2): 127-145.
- [13] Choi, Sang-Ki et al. 2013. "A Comparative Study on Curriculum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Based on the Syllabi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and Foreign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223-245.